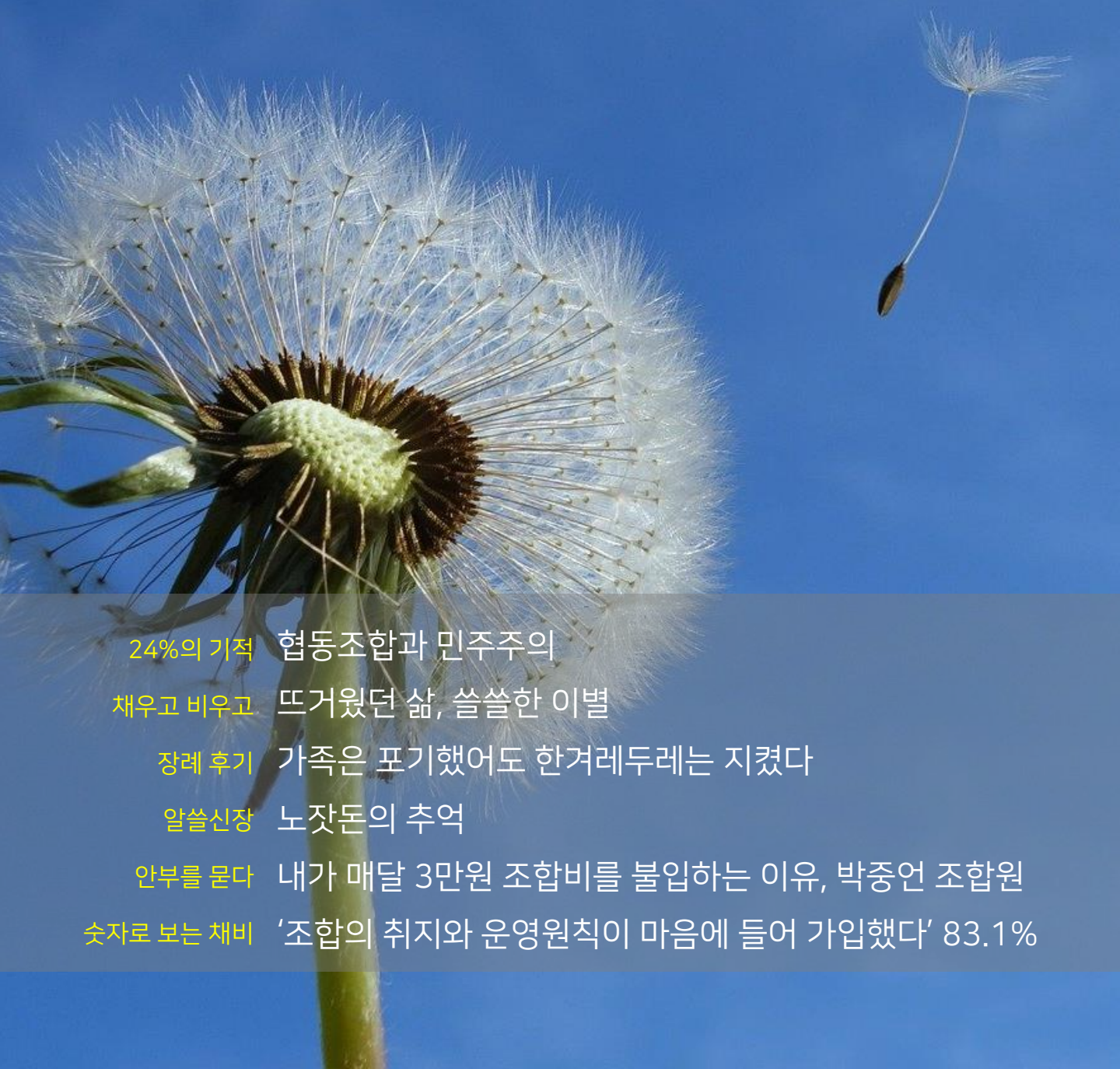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1년 3월 뉴스레터 vol. 41
한겨레두레협동조합



24%의 기적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채우고 비우고 뜨거웠던 삶, 쓸쓸한 이별

장례 후기 가족은 포기했어도 한겨레두레는 지켰다

알쓸신장 노잣돈의 추억

안부를 묻다 내가 매달 3만원 조합비를 불입하는 이유, 박중언 조합원

숫자로 보는 채비 '조합의 취지와 운영원칙이 마음에 들어 가입했다' 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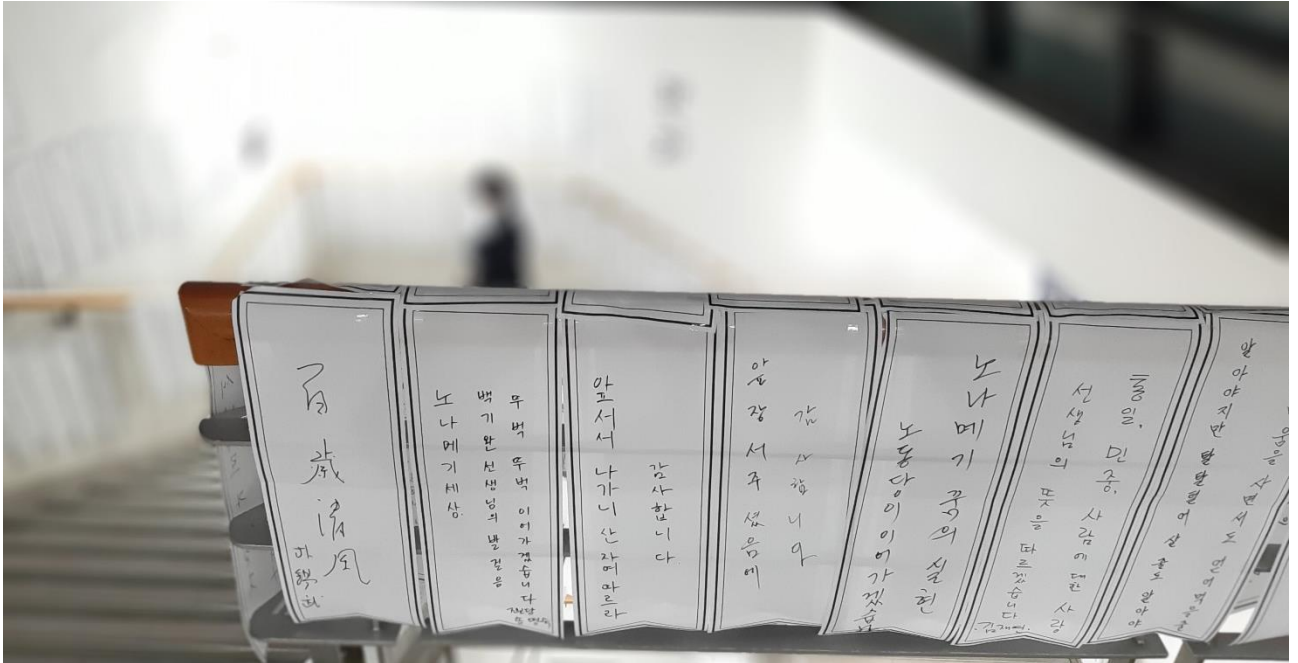
#작은장례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첫 번째 장례문화 캠페인으로
 ‘나도 #작은장례를 지지합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에 우리 조합원부터 함께 동참해 주세요.

지지서명하기

협동조합과 민주주의



백기완 선생이 가셨다는 기사를 읽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더니 상임이사가 말합니다. “지금 막 장례준비위원회에서 빨리 와서 (장례) 준비 안 하고 뭐 하냐고 전화가 왔어요. 백 선생님이 가 시면서 저희에게 선물(일)을 주고 가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시위나 집회 현장이면 항상 맨 앞에 계 시던 분, 그래서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분의 장례를 우리 조합이 맡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한겨레두레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5일장 기간 내내 조문객 안내며 노제, 영결식, 마석 모란공원 하관식 등을 수고나 돈벌이로 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하던 장례지도사들 모습에서도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른 며칠 후 사무국으로 조합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백기완 선생님 장례를 치르는데 조합비를 왜 사용했습니까? 그런 결정을 조합원에게 동의를 구하고 하셨나요?”

일순 당황했습니다. 물론 단순 오해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례를 유료로 진행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분 질문을 두고 사무국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격스러웠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조금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백기완 선생을 잘 모른다고 말한 동료 에게 고인의 행적을 설명하면서 문득 조합원들의 정치 성향이 다양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괜히 이 번 장례를 드러내는 바람에 혹시 다른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가입을 꺼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 고, 죽음에는 좌우가 없으니 누구의 장례든 정성껏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유명 보수 우익 인사가 우리에게 장례를 의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도 제 기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경제는 사람들의 돈벌이 욕망 충족을 가장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조회사가 상주들의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악용하여 가격을 후려치는 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라면 용인되며 가난한 사람들 장례를 외면하는 것도 돈이 안 벌리는 일이니 당연하다고 치부됩니다. 가난은 실패이고, 실패는 개인 책임이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각자도생으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사이, 돈벌이 경제 사상이 우리 생활과 정신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돈벌이가 되면 ‘선 (good)’하고, ‘성공’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이거나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외과의사는 정작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줄어들고 대신 성형외과 의사는 넘쳐납니다. 연봉과 아파트 평수, 자동차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재는 게 일반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에 맞서 ‘돈벌이’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자는 사람 중심 대안경제 만들기가 바로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협동조합에서는 ‘돈벌이가 얼마나 되느냐’보다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돈(자본)보다 사람 마음을 많이 모을수록 성공하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협동조합의 종자산(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자본금을 모으려고 열심히 한 것처럼 협동조합 경영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많이 모으려 애쓰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폭력이나 갈등, 분열, 배제가 아닌 타협과 절충, 공감과 같은 능력을 적극 발휘할 것이 요구됩니다.

‘민주적 운영원칙’이 협동조합의 마음 자본 조달 프로세스이자 자본주의 기업에 대한 경쟁력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민주적 운영원칙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많이 퍼져나가면 그 사회가 풀뿌리에서부터 진짜로 민주화되어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협동조합 운동을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돈을 최고 권력으로 만드는 자본주의를 정화시키는 대안경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백기완 선생 장례에 대해 굳이 마음을 써서 질문을 준 조합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우리 사무국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거나 지배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토론할 수 있었습니다. 고 백기완 선생이 원했던 세상이 바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서로 절충하여 공동선에 이르는 ‘노나메기’ 세상이었으니 오늘 여기 한겨레두레에서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셈입니다.

*노나메기 세상: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너도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세상

“네 조합원님, 저희는 조합원 돈을 써야 할 경우에는 절차에 맞게 꼭 묻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성장 환경인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백기완 선생님 장례를 치렀음을 자랑스럽게 알려드립니다.” ✨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우리 조합 알기 이벤트 4탄

“만약 유명 우익 보수인사가 한겨레두레에 사회장 장례를 의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하신 조합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설문참여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뜨거웠던 삶, 쓸쓸한 이별



고 유창주 님의 죽음에 부쳐

3·1절 휴일 아침.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에 빠져든 혼곤한 시각, 전화벨이 울린다. 드물지 않은 일이다. 죽음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휴일 아침이나 평일 새벽, 밤늦은 시간의 전화는 십중팔구 장례와 관련된 것이다. 궂긴 소식, 누군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이다.

나도 어느 자리에선가 한두 번은 얼굴을 마주했던 고인의 성함은 유창주. 향년 58세. 사인은 당뇨합병증과 패혈증. 성인 남성 평균수명에 훨씬 못 미치는 나이에 그는 고단했던 생명활동을 중단했다.

전화를 걸어온 이는 우리 조합의 이사를 지냈던 그의 선배였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라 움직이기 어렵다는 그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장례를 부탁했다. 나는 곧바로 박태호 상포계 총괄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그 역시 우리 조합원이자 한살림 임원인 고인의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그 역시 고인의 여의치 않은 형편을 두루 살펴달라며 간곡히 당부했다며. 두 선배의 통화에서 우리는 고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미안함,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조합은 고인의 형편을 헤아린 후 ‘추모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동체 기금’(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매월 불입하는 3만 원의 1%를 공동체 기금으로 적립한다)으로 그의 장례를 지원했다.

부산 출신인 고인은 마창지역 노동문화패 ‘일과손’의 창립멤버이며, 청년 시절 노동과 문화운동을 비롯해 잡지사 기자, 미술평론, 영화미술 기획 등 여러 밥벌이를 전전했다고 한다. 1992년 독일 카셀 대학 심포지엄 ‘제3세계 미술제 - 다른 것들과의 만남전’에 평론이 당선돼 독일을 초청 방문한 적도 있었다.

고인은 또한 영화미술 전문 회사 이미지박스의 기획이사를 거쳐, 참여연대 문화 사업국장, 아름다운재단 설립 추진 기획실장, 아름다운재단 초대 사무처장, 희망제작소 기획실장, 전국 한살림 홍보부장 겸 계간 <살림 이야기> 초대 편집장을 역임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웹 2.0, SNS와 소통 컨설팅과 강연 전문가로 활동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특보와 서울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일한 적도 있다.

젊었을 때는 ‘지운’이라는 익명으로 글을 쓰며 논쟁을 펼쳤고, 〈호남석유화학 20년사〉, 〈화승R&A 20년사〉 외 여러 기업 역사책의 기획, 집필 주간(주 집필)을 담당했고, 논문과 기사도 여러 편 썼다. 저서로는 〈박원순과 시민혁명〉,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외 다수의 공저가 있다.

그를 아는 많은 이들은 고인을 일벌레이자 아이디어맨, 독서광에다 철저한 현장주의자로 기억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과 20여 년 가까이 동고동락했던 그는 비범한 기획력과 탁월한 안목으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혁신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나는 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오마이뉴스〉에 실린 ‘한 시민단체 간부의 구멍 난 구두’라는 짧은 기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01년 1월 22일 기사니까 20년 전 기사이다.

어느 날 참여연대 상근자와 기자들이 술자리를 가졌는데, 어느 간부의 구두가 화제가 되었던 모양이다. 당시 참여연대에서 간부로 일하던 이의 구두에 물이 새 양말을 두세 개씩 끼 신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기자가 구멍 난 구두의 주인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다.

"구두에 물이 좀 새죠...(허허허) 그래서 가끔 추울 때는 양말 두세 켤레를 신어요. 신발이 두 개 있는 데 저는 한 개가 끝장날 때까지 신거든요. 그리고 이 구두는 둥그스름한 게 제 맘에 들어요."

기자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은 듯 웃어넘긴 그 구멍 난 구두의 주인은 참여연대 문화사업국장 유창주였다. 구두는 4년 전 그의 부친이 지인으로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었는데 그에게 대물림된 것이다. 그는 겨울 내내 이 구두를 신고 허름한 검은색 점퍼 하나만 입고 다녔다고 한다.

당시 그의 월급은 100만 원 정도였다. 교통비와 식대로 들어가는 50여만 원의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으로 세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기사는 전한다. 이 쓸쓸한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한 달에 열흘 정도는 일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야만 하는 그. 그에게서 우리 시대 시민운동의 희망과 그늘진 가게부를 동시에 엿볼 수 있다.”

그때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지금 공익과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희망은 싹트고 그늘진 가게부에 햇살이 비치고 있을까.

2021년 겨울 끝자락에서 고인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의 고통으로 삶을 마감했다. 그와 동시에 평생 고인의 등에 드리웠던 가난의 응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혁신가로서 뜨거웠고 현실에서 치열했던 그와 시민사회는 이렇게 조용히, 쓸쓸하게 이별하였다.

고인의 삶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빈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가족은 포기했어도 한겨레두레는 지켰다



올해 9월이 되면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하 한겨레두레)과 인연을 맺은 지 꼭 10년이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나는 부산지부를 창립하면서 조합원이 되었고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금도 조합원으로 있다. 지금은 부산지부가 활동이 뜸하지만 조합원이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

고귀한 생명을 떠나보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존엄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 속에서 이어져 왔던 상포계의 정신은 온데간데없다. 장례는 온갖 거품과 바가지로 ‘돈’버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오래 전부터 흥역을 앓고 있는 이런 상조문화를 보면 아주 안타깝다. 그래서 한겨레두레의 상호부조 정신은 여전히 나의 자랑이다.

나는 1인 가구 취약계층 주민들, 소위 쪽방 주민들과 ‘내미는 마음’이라는 자조모임을 하고 있다. 혼자서 쪽방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모여 함께 밥 먹고 사는 얘기를 나눈다. 도배 봉사활동도 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분들은 대개 술을 과하게 드시는 습관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많고, 심한 경우 삶의 중지부를 찍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주에 우리 모임의 장OO형님이 결국 그 놈의 술에 빠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 술만 드시지 않으면 너무나 점잖고 좋은 분인데, 술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응급실에 실려 갈 때까지 끝장을 보는 분이다. 그러다 결국 심정지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혼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오랫동안 생활하였으니 주위에 가족이 있을 리 만무했다. 법적으로는 형제가 있고 아들도 있다고 해서, 어렵사리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을 했는데 가족들은 시신 포기각서를 쓰고 말았다.

그렇게 장제급여 80만 원으로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야 했다. 수년 동안 함께 했던 형님을 초라하게 보낼 수 없어서 ‘내미는 마음’ 회원과 함께 공동체 장례를 준비했다. 하지만 현실의 법적인 장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빈소를 차리고 싶어도 권한이 없어서 불가능했다.

형님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동구에 공영장례가 만들어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서 시신 위임장을 받아야만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가족도 시신을 포기한 사람의 장례를, 지인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면 어느 누가 ‘시신 위임장’을 써주겠는가. 공영장례는 고사하고 하루라도 빈소를 꾸미고, 국화꽃 장식을 하고 육개장이라도 한 그릇 나누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도 돈을 모았지만 부족해서, 할 수 없이 한겨레두레의 문을 두드렸다. 한겨레두레는 흔쾌히 장례물품과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

가족마저 외면하고 포기한 고인을 한겨레두레는 포기하지 않았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조합비 한 번 낸 적이 없는 쪽방 주민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한겨레두레 덕에 쪽방 주민과 활동가들, 여러 단체, 교회가 모여서 여느 상갓집 못지않게 빈소도 잘 꾸미고 예쁜 생화로 고인이 누워 있는 관의 빈틈을 메웠다. 마지막 가시는 길,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별할 수 있었다.

한겨레두레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분들 보낼 때 좋은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한겨레두레의 조합원이라서 또 다행이다. 죽음의 장벽 앞에서 손 내밀 수 있는 조합이 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 ‘채비’를 통해서 좀 더 인간 중심적인 공동체 장례문화를 더 멀리 전파하기 바란다. ✨

임기현 | 조합원

*장례 지원 사업에 조합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후원금 계좌: 131-015-926211 신협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노잣돈의 추억



15년 전 상조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장례절차도 염습 기술도 아닌 ‘노자 멘트’였다.

염을 다하고 관에 모시기 직전 유족들을 모시고 입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마지막 인사를 시킨다. 그러면서 시신 위에 저승 가시는 길에 마지막 용돈을 드리라고 ‘멘트’를 친다. 멘트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그날 노잣돈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자 멘트’는 매우 중요했다. 그 시절 노자 멘트는 대부분 보조팀장들이 했는데, 노잣돈이 적게 나오는 날에는 고참에게 욕을 들어먹곤 했다.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도 염습 장면을 참관하면서 아버지의 관 안에 노잣돈을 넣어 드렸다. 마지막 ‘천판(관 뚜껑)’을 덮고 결관하여 다시 안치실에 모실 때까지도 나는 장례지도사들이 노잣돈을 빼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마지막 천판 닫는 순간 유족에게 깊숙이 고개 숙여 인사 드리라고 하는데 그 순간 노잣돈을 빼내는 것이었다.

기억을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였다. 장의 버스 안에 새끼줄이 걸려 있었고 장지로 가는 도중에 다리가 나타나면 버스 기사가 차를 세웠고 새끼줄에 돈을 꽂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았다. 또 공원묘지에 매장할 때도 무덤 중앙에 길쭉한 작대기를 하나 꽂아놓고 그 끝에 새끼줄을 매달아 돈을 꽂게 했던 기억도 있다.

이러한 노잣돈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혼이 사는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생사관을 바탕으로 영혼이 사는 세계에서든 재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이나 무덤 속에 재물을 넣어주는 문화가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문화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순장(殉葬)이라는 형태까지 생겨났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풍습은 점점 사라졌고, 국가별·종교별로 다른 생사관이 생겨났고 그에 따른 죽음 의례도 발전해왔다.

우리 전통 장례에는 노잣돈을 놓는 절차를 찾아볼 수 없다.

비슷한 절차로는 습(襲)의 단계에서 ‘반함(飯含)’ 의례가 있다. 반함은 시신의 입에 쌀과 엽전 혹은 구슬을 물려 입안을 채우는 것이다. 이는 부모님에 대한 예(禮)로서 행하는 것인데, 〈예서〉에는 ‘반함을 하는 이유는 차마 입이 비어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있고, 깨끗한 물건을 채우는 것’이라 나와 있다. 우리가 저승 가서 쓰라고 드리는 노잣돈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요즘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장례 현장에서는 노잣돈을 요구하는 장례지도사가 있다. 유족이 먼저 노잣돈을 놓아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다.

우리 조합 장례지도사들은 지전(紙錢, 가짜 돈)을 준비해서 유족이 노잣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잣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죽은 이에게 5만 원 지폐를 가득 넣어드린다고 해도 유족들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가치 없는 종이 찌가리일 뿐이다.

지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 마음에 공경과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가치는 10억 원, 100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담아 저승으로 보내 드리자.✽

박태호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포계 실장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내가 매달 3만원 조합비를 불입하는 이유, 박중언 조합원

박중언 <한겨레> 기자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고참’ 조합원이다. 2012년부터 마을을 지키는 굵은 나무처럼 우리 조합을 지탱해 주고 있다. 그가 스스로에게 새로운 직함(?)을 부여했다. ‘노후연구자’가 그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연구자로서 오랜 관심과 연구 끝에 노작을 펴냈다. <노후 수업>. ‘누구나 바라는 노후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법’이란 부제가 붙었다.

<한겨레> 기자로 30년 넘게 일해 온 그는 20여 년 전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서 진행된 일본을 보면서 ‘나이 듦’에 의문을 품었다. “나부터 노후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해답을 찾는 공부로 이어졌고 “행복한 노후가 어떻게 가능한지” 오랫동안 모색해온 결과물이 <노후 수업>에 담겼다.

책은 정년을 앞둔 5060 중장년의 입장에서 일, 돈, 건강, 관계, 권태로 나누어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직장인의 경우 퇴직 전과 후의 삶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전과 다른 시각에서 할 일을 찾아야 하고, 모아둔 돈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쓸지 결정하는 일이 녹록치 않은데, 결들인 통계와 현재 운용되는 사회제도에 대한 소개가 각자의 현실에서 균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쑥 찾아오는 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나 관계에서 정신적 안정을 찾는 일 모두 각자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하기에 책에 담긴 제언을 체화하는 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지은이가 오른손의 부담을 줄이려고 왼손을 사용하면서 서툴고 느리지만 단련되어 가듯, 책을 따라가다 보면 ‘비워내고 덜어내는’ 노후 준비 과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듯하다.

책을 읽다 보면 노후도 준비와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삶도 그렇듯 노화와 죽음도 저절로 주어지기는 하지만, 치열한 존재의 사투를 동반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자 일부이지만 ‘저절로 그렇게’ 살아지지는 않는다. 자연은 고투의 역정이다. 그래서 ‘나이 듦’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런 공부의 산물이자 삶의 후반전에 꼭 필요한 나침반이다.

이 책의 내용 중 198~200쪽의 내용을 필자의 허락을 받아 재수록 한다. 이 글을 보면, 그가 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매달 꼬박꼬박 3만원씩 불입하고 있는지, 어떤 장례가 바람직한 지를 살펴 볼 수 있다. ✽



박중언 저 | 휴(休) | 2021년 03월

편집자 주

요즘은 죽음과 뗄 수 없는 게 상조 서비스다. 과거에는 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일처럼 함께 도왔다. 품앗이다. 누구나 같은 일을 겪기 때문이다. 지금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다. 아무리 간단히 한다고 해도 전문 장례지도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몹시 피곤한 일이다.

노부모 장례에 대비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5060이 많겠지만 오래지 않아 대상자가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상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달마다 몇만 원씩 꼬박꼬박 내지만, 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장례에 드는 비용은 오롯이 자기부담이다. 사망하면 보험료를 더 이상 낼 필요 없이 거액의 보험금을 타는 생명보험과 상조상품은 다르다. 400만~500만 원대 상품에 가입하면 언제 장례를 치르든 정해진 액수의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미리 구입해뒀다는 것 외에는 실익이 없는 셈이다.

실제 상이 났을 때 상조업체에 연락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업체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의, 관과 같은 값비싼 장례물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수익사업이 된다. 미리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후불식 상조 서비스가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례 목적의 적금을 따로 넣는 쪽이 적은 이자라도 받고 떼일 우려도 없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조회사의 파산과 부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이나 중도 해지 시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보험사처럼 상조회사도 많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 상조업체들이 고급 안마의자·가전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내걸고 공격적 영업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도 나는 2012년부터 달마다 3만 원씩 상포계 협동조합(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회비를 내고 있다. 실속 있는 장례와 공동체 정신을 표방하는 단체여서다. 협동조합인 만큼 상이 난 뒤에 연락해 조합원으로 가입해도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다만, 장례문화 개선이라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동감하기에 미리 가입해 장례비용을 꾸준히 적립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 특히 부모의 상을 앞에 놓고 비용을 따지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지나치게 비싼 장례물품을 강권해도 거부하기 힘들다. 상조 서비스를 선택할 때는 이런 점을 살펴보는 게 지혜다. 상주의 뜻을 존중하고, 장례의 허식을 덜어주는 곳을 찾을 필요가 있다. 나는 협동조합을 통해 장례의 품격과 정성을 체감하면서 비용 200만~300만 원을 절약했다는 경험담을 적잖이 들었다.

이곳에선 통상적인 3일장이 아니라 ‘작은 장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루만 빈소를 차리고 가족장으로 치르는 1일장과 아예 빈소를 차리지 않고 별도의 추모공간에서 추도식을 치르는 무빈소 장례가 가능하다. 남은 이들이 서로의 안면 때문에 얼굴을 비추기 바쁜 기존 장례보다 떠난 이에 대한 ‘추모는 깊고 형식은 간소해진’ 장례다. 나의 죽음 철학에 가장 가까운 방식이다.

도서 ‘노후 수업’ 발췌

죽음이라는 매혹



카우보이의 노래 The Ballad of Buster Scruggs

2018/ 미국/132분

감독 : 에단 코엔, 조엘 코엔

출연 : 제임스 프랭코, 리암 니슨, 데이빗 크럼홀츠 등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는 넷플릭스가 제작한 코엔 형제의 작품이다. 6편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배경이고 죽음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여섯 개의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관통된다.

각 이야기의 오프닝은 책을 펼치는 형식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차용하며 관람자를 극의 내부로 끌어들인다. 1편의 주인공인 카우보이는 시종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른다. 황량한 서부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한 그는 인생의 고통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밝고 명랑한 모습이다. 살인이 일어난 그에게 죽음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유희에 가깝다.

그의 삶 주위를 배회하는 죽음의 그림자도 비극을 찾아보기 어렵다. 약간의 긴장이 있지만 대체로 희극적인 인상을 준다. 심지어 그가 죽음 이후 천사의 날개 옷차림으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며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죽음이란 삶의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어서 전개되는 2편은 은행 강도 이야기, 3편은 사금 채취 노인 얘기, 4편은 유랑극단 이야기, 5편은 왜건 마스트 이야기 등은 죽거나 죽음을 목도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6편 모두 매혹적이었지만 특히 4편의 유랑극단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리암 니슨의 복잡한 표정과 그를 바라보는 헤리멜링의 스산한 표정이 개중 압권이다.

영화를 통해 감독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과 죽음의 순간에도 인간은 매혹적인 장면에 홀린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죽게 된다. 죽음은 삶의 과정이고 마무리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관문이라는 것,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아름다운 것에 홀리고 그것을 좇아 살아간다는 것, 산다는 것은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임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우은주 |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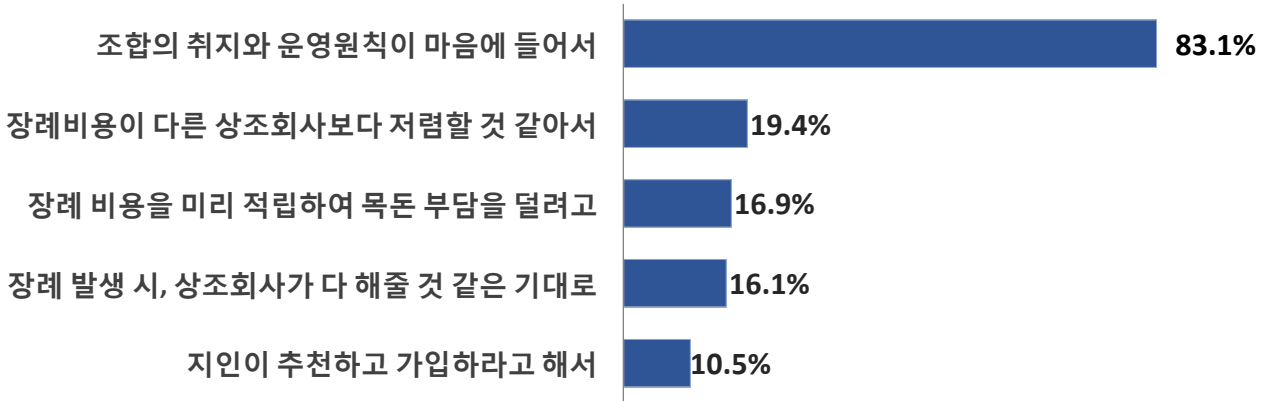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1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가입 이유

‘조합의 취지와 운영원칙이 마음에 들어서’ 83.1%

한겨레두레협동조합 가입 이유 (중복응답, n=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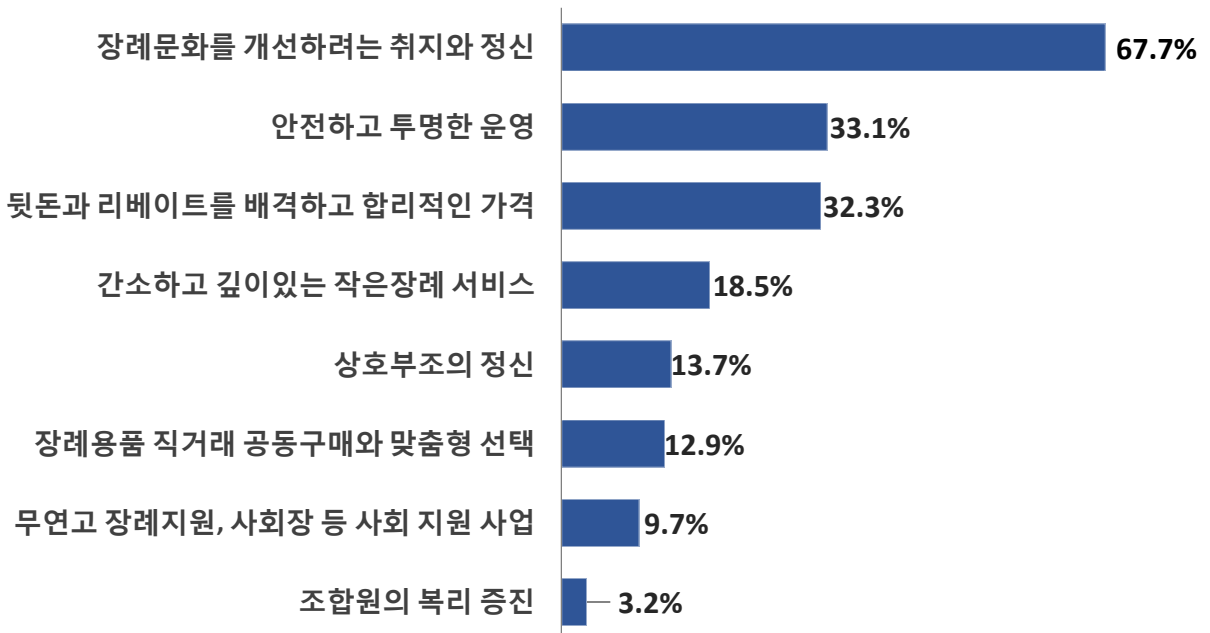


2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차별점

‘장례문화를 개선하려는 취지와 정신’ 67.7%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차별점 (중복응답, n=124)



*자료출처: 조합원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 124명, 20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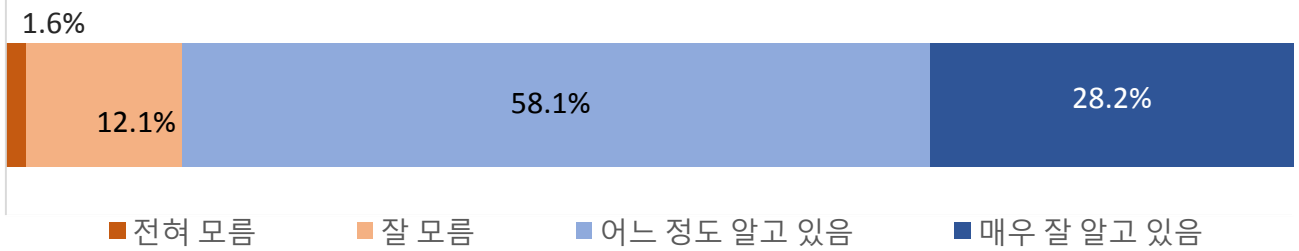
3

상포켓돈 구조 인지 및 인식

‘조합비 운용구조 알고 있다’ 86.3%

Q: 귀하께서 납입하시는 조합비의 24%는 조합운영비로 사용되며, 나머지 76%는 장례 발생시 장례용품 및 서비스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마진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상조회사의 장례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조합비 운용구조 인지도 (n=124)



*자료출처: 조합원 인식 조사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 124명, 2021. 3)

조합원 인식 조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뉴스레터 40호 문자발송과 함께 보내드린 온라인 조사(2/23~3/18)에서 총 124분의 조합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5분을 추첨하여 참든건강과학(www.charmden.com)에서 협찬한 건강제품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합원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당첨자: 이차경 조합원, 최영순 조합원, 홍성재 조합원, 김혜란 조합원, 박규수 조합원



한겨레두레에 바란다

• 조합원인식조사(2021. 2)에서 수집된 한겨레두레에 대한 의견과 응원들 중 일부를 공개합니다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지역의 문화에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거점을 마련하여 실천해야 겨우 한걸음 뚝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왕성한 의욕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조합 김OO조합원-

"1인 가족 시대에 맞게 자신의 장례 걱정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현재의 상품은 가족이 함께하면서 장례문화 개선 차원이라 생각되어서요." -서울조합 이OO조합원-

"가능하면 영리보다 공적인 조합이길 기원합니다." -서울조합 안OO조합원-

"가입 후 지금까지 운영진께서 잘 운영해오셨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조합 윤OO조합원-

"장례에 대해 남들이 치르는 것만 봤지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면 어찌해야 하는지 1도 모릅니다. 장례에 대한 짧고 요약된 안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조합 배OO조합원-

"늘 다른 장례문화보다 선도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취지대로 이루어나가는 상포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조합 한OO조합원-

"믿음이 있어서 별도로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활동에 조금씩 참여하려고 하니 많은 행사와 조합 활동 영역 넓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조합 권OO조합원-

"우리 사회 장례문화를 좋게 변화시켜 간다는 좋은 뜻을 가지신 만큼, 더디기더라도 제 길로 오래 뚜벅 뚜벅 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서울조합 박OO조합원-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 또한 조합에서 운용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결혼을 통해 조합을 알게 되면 자연스레 장례까지 연결되고, 나아가 집안의 대소사를 조합에 맡길 수 있는...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같은 그런 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조합 양OO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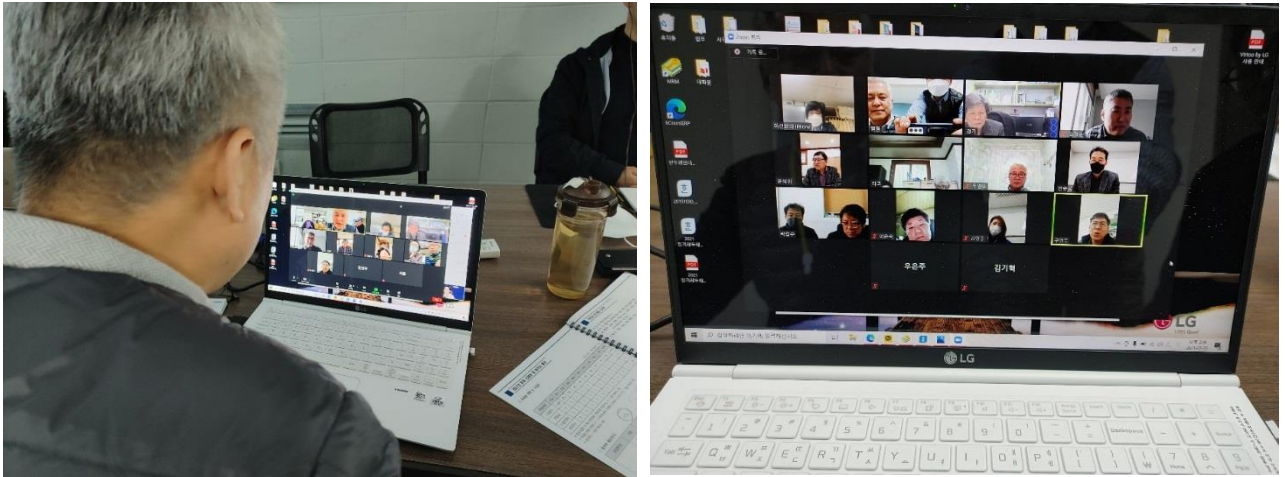
"정기적인 소식 알림을 통해 소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창원조합 정OO조합원-

"일반 상조회사와 다른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북조합 정OO조합원-

"채비 강의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천안아산조합 박OO조합원-

2021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정기총회

지난 2월 25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연합회 정기총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각 지역조합의 이사장, 이사진, 사무국장들이 참석하였으며 2020년 사업을 되돌아보고 2021년 사업계획과 함께 주요 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비대면이 아닌 함께 모여 마주보며 인사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정기총회

지난 3월 11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정기총회를 서면총회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함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구글 폼을 이용한 안건 의결, 유튜브를 활용한 사업 평가와 사업계획 설명,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화상 회의로 안건 질의 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총회 후 서면 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2021. 2월

장성오 조합원 모친상
김해랑 조합원 부친상
이해원 조합원 부친상
모성훈 조합원 빙모상
김종신 조합원 모친상

정용오 조합원 모친상
배영란 조합원 모친상
김흥래 조합원 빙부상
홍성표 조합원 부친상
최종숙 조합원 부친상

김영혜 조합원 시모상
김명운 조합원 모친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강경희 조합원 모친상
최빛나 조합원 자매상

2021. 1월

전현근 조합원 모친상
장교순 조합원 부친상
조수경 조합원 모친상
이애경 조합원 부친상

남궁성태 조합원 부친상
김금옥 조합원 시부상
고영빈 조합원 부친상
서화경 조합원 시부상

유수강 조합원 시모상
고준환 조합원 부친상
문성만 조합원 부친상
윤활식 조합원 본인상

2020. 12월

이승철 조합원 빙모상
김유중 조합원 모친상
송관용 조합원 모친상
왕영술 조합원 부친상
추모지원: 주덕용님, 강제윤 부친상

김미경 조합원 손녀상
김현하 조합원 모친상
김숙영 조합원 시부상
한승동 조합원 조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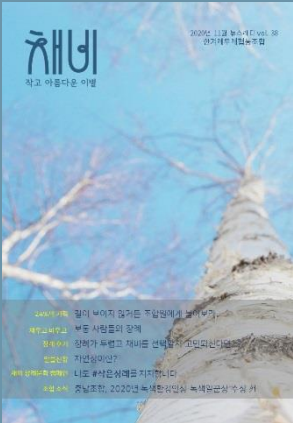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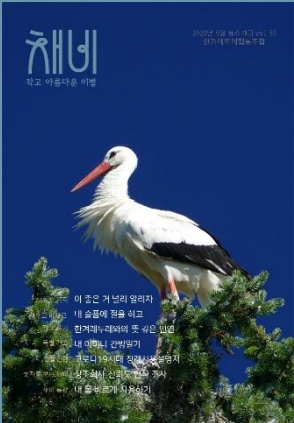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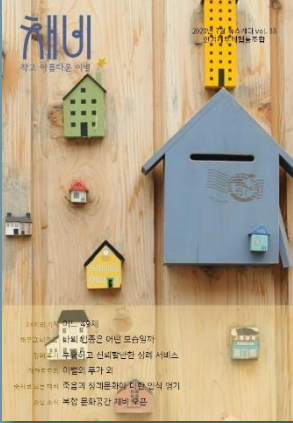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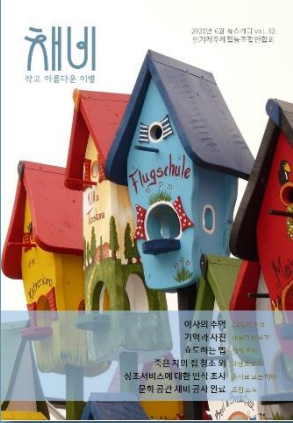
이복순 조합원 시부상
백찬홍 조합원 빙모상
박영규 조합원 모친상
방성환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